

현대자동차 정갑득후보 승리의 배경

- 양봉수 열사의 분신, 진실은 승리한다 -

박 유 기(현대자동차노동조합 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제조업 중 국내 최대의 단위노조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6대 임원선거는 노동계와 자본, 정권 등 모두의 관심사였다. 그것은 바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이 '어떤 기조의 노조집행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실리주의적이고 노사협조적인 노동조합운동을 부추겨 온 자본이나 정부측에게 이영복 집행부의 재선은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도 실리적이고 노사협조적인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 간다"고 강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의 출범이 눈앞에 닥친 상태였고 노동계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현대자동차노조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대책본부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 오고 때로는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못미더워 서울에서까지 직접 찾아와서 관심을 표명하기까지 했다. 특히 개표가 있던 날은 선거대책본부 6대의 전화기가 단 10초간의 여유도 없이 울려 댔다는 데서 전국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개표 직전까지도 자본과 노동부는 이영복 후보의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엮었다. 정갑득 후보는 유효 투표수 중 60%의 지지를 얻으며, 이영복 후보를 7천 표차 이상으로 압도하는 승리를 거둔 것이다.

사전에 정갑득 후보의 열세를 주장해 왔던 각종 언론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예상 밖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노동계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 회사측의 노무관리팀은 회사측과 협조적인 이영복 후보의 승리를 장담했다가

참패를 당하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선거 직후 곧바로 전원이 수련회를 가서 선거 참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외로 조합원들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당당한 결과다” 라는 당당한 입장을 피력함은 물론, 오히려 압도적인 승리 덕분에 스스로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런 결과는 9대 대의원선거(10월19일)에서 현장의 민주파 대의원이 대거 당선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현자노조의 6대 임원선거 결과가 정갑득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자, 전국의 많은 노동단체들과 언론기관에서 “왜 실리주의가 참패를 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영복 집행부가 실리를 못 챙긴 것도 아니었고, 기존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조사나 연구들도 이영복 집행부의 실리주의에 조합원들의 생각도 동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다고 결론을 내곤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고자 한다.

2. 5대 임원선거의 영향

1) 이영복 위원장의 당선

93년 8월에 있었던 현대자동차노조 5대 임원선거에서 이영복 위원장은 과반수의 딱 1표가 넘어서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진영은 93년 현총련 공동임투에서 실패를 했고 - 당시 이인제 장관의 긴급조정 발령에 따른 대응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굴복함으로써 조합원총회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는 결과를 초래함 - 그 결과 그 동안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어 오던 분열의 조직은 선거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입후보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 동안 한 조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세 팀으로 입후보해서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혼탁한 분위기 속에서 임원선거는 이영복 후보를 결선에서 당선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당시의 선거 평가는 접어 두기로 한다.

2) 민주진영에 대한 도덕성 시비

이영복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3, 4대 집행부를 싸잡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영복

김행부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양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들어오면서 마치 과거의 민주파 김행부가 노조활동을 집행하면서 노동조합을 망쳤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예를 들면 “국기를 모독하는 무리들이다. 수배를 받으면서 만화책이나 보고 놀았다”, “조합비를 다 탕진했다”, “인격도 도덕도 없는 사람들이다. 조직이기주의자들이다”. 등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영복 김행부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서 전직 위원장과 민주파 진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면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할 정도로 몰아갔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조합원들까지도 “재물이 뭔가 잘못된 게 있기는 있구나” 또는 “뭔가 뒤가 구리는 게 있구나” 하는 식으로 민주파 진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결과로 한동안 현대자동차의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현장에서 고립되는 양상으로까지 몰리기도 했었다.

3) 협조와 실리의 극치

이영복 김행부는 민주노조운동진영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측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실리를 선전하기 시작했다. 조합원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향상되면 노동조합 기관지를 통해서 은근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며 5대 김행부의 성과라고 선전을 했다. 이들은 당시까지 해고자로 있었던 이현구 3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상철, 김종산, 황종하 등 해고자들도 한번의 노사협상으로 모조리 복직시켰다.

94년 임금협상에서는 단 보름 동안 몇 차례 협상만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상분을 따냈다. 또한 95년 임·단협에서는 주 42시간 근무, 중복휴일 부활, 상여금 지급시 O/T수당 20시간분 추가, 단순직 직급전환, 성과급 200% 추가확보, 기술연구소 생산직 월급제 실시 등 실로 엄청난 실리를 챙겼다.

한마디로 임금인상에서는 동종사나 그룹 계열사의 성과를 항상 뛰어넘는 결과물을 챙겼고, 조합원 개개인의 후생복지에서도 노사간의 협의만으로 많은 부분을 챙취(?)하였다.

4) 그러나 생산의 주역들은 고통스러웠다

노사관계가 협조를 통한 실리를 구가하고 있을 때, 생산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날로 떨어졌고 대의원, 소위원의 권한

들은 점점 반장과 기사, 과장들에게로 넘어 갔다.

위원장과 집행부가 회사측의 생산량 증대에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노동강도는 점점 높아져 갔다. 평소 주야 2교대로 근무하는 현장에서 콘베어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노동시간은 토요일 철야, 일요일 특근·철야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무려 70시간에 이르는 상태로까지 치달았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평균임금을 올라가게 한 진정한 원인이다.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돈버는 기계가 된 것이다.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산재발생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94년에는 창사이래 최고인 559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노동조합 조직력이 취약해지면서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자, 회사측은 현장조합원의 고충처리를 요구하는 대의원, 소위원의 주장울 묵살하기가 일쑤였고, 심지어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사고를 은폐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 회사측은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직능자격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코자 기도했으며, 이러한 신인사제도의 본질이 폭로되면서 장기근속자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저 친구 저렇게 일하다가 죽을까 봐 겁난다” “87년 이전의 통제가 오늘날 되살아난다” “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등 현장으로부터 위기의식과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었다.

5) 민주노조운동진영의 대응

93년 5대 임원선거의 패배, 뒤이은 이영복 집행부로부터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현장의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일시적인 휴면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94년이 되면서 현장의 민주진영동지들은 노동조합 집행부와 회사측의 무차별적인 악선전공세에 대해서 올바른 노동자의 관점으로 정면 대응해 나가면서 동지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길」, 「현자노동자신문」 등 현장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울바로 담아 내리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소식지들이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현장의 제민주진영은 서서히 부서별, 사업부별 조직화 작업에 돌입했다. 상황은 엄혹했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힘은 서서히 회복되어 나갔다.

3.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미 앞에서 기술했듯이 선거전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현장의 분위기는 이영복 위원

장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장기근속자들은 실리와 협조의 한계를, 나아가 고용불안까지 느끼고 있는 분위기였다.

결정적으로, 95년 5월 양봉수 열사의 분신 이후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도로 치달았고, 당시 이영복 위원장과 5대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배신감이 만연해 갔다.

당시 투쟁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노조의 2, 3, 4대 위원장이 구속되었고, 그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던 다수의 활동가들이 구속, 수배, 해고되는 등 많은 희생이 따랐다. 그러나 95년 5월 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현대자동차노조 내의 양심이 살아 있음을 각인시켰고, 각기 흩어져 활동하고 있었던 민주진영동지들을 결속시켰다. 구속된 전임위원장들은 감옥에서 민주진영의 총단결을 결의했다. 민주노조의 불씨를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선거에 돌입하기 전부터 현장의 제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이영복의 재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인식이 제민주진영의 연합을 추진하게 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민주진영연합은 결국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위원장 후보는 이제 이영복 후보와 정갑득 후보 두 사람으로 압축되었다.

선거판은 대다수 조합원들과 민주노조운동진영은 회사측의 몰량공세, 지방언론사, 나아가 교육청의 선거개입에 맞서 싸워야 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식을 초월하는 통제를 가하여 정갑득 후보의 홍보 유인물이 공백 상태로 배포되게 하는 등, 정후보의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민투위(현대자동차 민주노동 투쟁위원회) 등 현장조직은 발로 뛰면서 이러한 악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민주노조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갔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선거운동 말미에 가서 조합원들 속에 공통적으로 번져 갔던 인식은 “회사와 선관위,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이영복 후보를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치러진 투표에서 조합원 동지들은 회사측과 총자본의 기도를 박살내고 말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비록 이영복 집행부가 협조와 실리라는 기조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실의를 쟁겨 주었지만,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권위가 떨어지고,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조합원들은 용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올바른 노동조합만이 노동자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건강한 노동자의식이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들 속에 깊이 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양봉수열사의 분신과 그의 투쟁정신이 조합원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의식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의 민주조직이 그 동안 이영복 집행부 시절의 악선전과 탄압을 감내하면서도 한시도 민주노조를 포기하지 않고 대중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치열하게 투쟁해 왔다는 것이다.

아무리 총자본의 선전 공세가 강할지라도, 그리고 나아가 노사협조를 부르짖는 자들이 선전공세를 펼치더라도 조합원대중의 잠재된 분노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설득과 조직사업으로 대응해 온 그간의 성과가 현대자동차노조의 새로운 희망인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승리로, 조합원들의 정감득 후보 선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